

“목포 밤바다에서 한여름 추억 쌓으세요”

목포대교 총연장 4.1km...이국적인 야경 옛 대반동 해수욕장 ‘핫 플레이스’ 각광

전남 서부권 중심도시인 목포시가 지역 관광명소를 뜨고 있다. 여름 밤 낭만을 더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과 시티투어 등은 이국적인 야경을 연출하면서 피서철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목포지역은 국토 서남권 지역에 위치해 일몰과정에서 비쳐지는 저녁 노을이 장관이다. 노을이 저물면 곧바로 해변 조명으로 여름밤을 낭만과 멋으로 장식한다. 놓칠 수 없는 목포의 여름밤 풍경이다.

여름이 휩쓰는 최근 목포는 야경으로 열대야를 잊게 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 야경은 이달 추천 관광지 선정됐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에 진

입해 계속 직진하면 북항과 고하도를 잇는 목포대교가 나타난다. 지난 2012년 6월 개통한 목포대교는 총연장 4.1km로 웅장한 위용을 뽐낸다. 특히 밤에는 큰 학 두 마리가 밤바다를 차고 올라가는 모양의 조명이 불거리를 선명하다.

목포대교가 밤에 뽐내는 매력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인근의 옛 대반동 해수욕장 일원이다.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2’에서 방송된 이후 밤 마실을 나온 목포시민과 야간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바닷바람과 파도소리 속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은 여름밤만의 낭만을 선사한다.

목포대교와 대반동 일원이 정적인



목포대교는 총연장 4.1km로 전남 서남권 야경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다. 목포 북항부터 고하도까지 연결돼 있다.

바다의 멋이라면 이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하당 평화광장은 시원한 물줄기가 청량감을 자아낸다. 평화광장 앞 바다에는 최고 70m까지 솟아오르는 바다분수가 조명과 레이저쇼,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춘다.

평화광장 끝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 500호인 ‘갯바위’는 은은한 조명 속에서 낮과는 다른 신기함을 자아낸다. 목포의 밤은 ‘야경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다. 버스는 8월까지 화·수·목·금·

토요일 각각 저녁 7시 30분에 목포역에서 출발해 목포대교, 유달산, 갯바위, 바다분수 등을 찾는다. 목포시 홈페이지 목포문화관광(<http://www.mokpo.go.kr/tour>)을 접속해 온라인 예약하면 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내고장 일꾼



이동진진도군수
수는 6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 황실에서 열리는 주요개발사업 보고회에 참석한다.



안병옥강진부군수
수는 6일 오전 9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한다.



홍인섭영암부군수
수는 6일 오전 8시 30분 부군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을 논의한다.

강진쌀 쇼핑몰 판매액 156% 경추 ‘프리미엄 호평쌀’ 13년 연속 브랜드 선정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에 강진쌀 쇼핑몰의 판매금액이 지난해 대비 156% 증가한 22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강진농협쌀조합 공동사업본부의 ‘프리미엄 호평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13년 연속 선정됐다.

강진군은 그동안 강진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추진해 왔다.

강진군청 소속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쌀판매에 참여하고 우수 부서와 개

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강진군수는 고객 고객에게 감사 인사와 품질 좋은 쌀생산을 다짐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강진쌀판매협의회는 판매금액의 1%를 적립해 대외 홍보와 쌀판매 전담 직원 배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주력 상품인 벼농사를 비롯해 농림축산 분야의 6차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주민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도초 전국 최대 ‘수국 공원’ 조성 박우량 군수 공약사업...“사계절 꽃 축제장으로”

신안군은 ‘천사의 섬’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초도에 ‘수국’을 테마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천사의 섬 14개 읍, 면별로 특색 있는 꽃을 식재, 관리해 연중 세계적인 꽃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박 군수는 우선 민선 5기 재임 시절 준공했으나 지난 4년동안 관리에만 그치다시피 한 도초 수국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신안군은 도초도에 수국을 테마로 전국 최대 규모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 군수는 최근 잇따라 수국공원 현장을 방문해 조성, 수국공원 보완과 확장, 산책로 꽃길 조성 등으로 수국공원을 완성시켜 나갈 목표를 세웠다.

수목 관리를 위한 관수시설을 확충하고 수국 보식 및 추가 식재를 지지하고 수국 유리온실 증축 자생식물 식재, 관리사무소, 하우스 5동, 공원 및 주차장 내 화장실, 쉼터 등 부대시설 설치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도초면 각각 마을별로 특색 있는 수국을 심고 가로수 사이사이에도 수국을 식재해 섬 전체를 수국의 섬으로 만들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여유로운 생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수국 개화기인 6월~8월

경에는 수국 축제를 개최하는 등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볼거리, 체험 학습, 휴식휴양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국공원은 지난 2005년 폐교된 도초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일대를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국 꽃을 테마로 공원을 조성했다.

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10.2ha에 전통정원과 수국공원, 소리마당, 웰빙정원 등 주제원으로 나뉘는 수국, 산수국, 나무수국, 불두화 등 15종 3만여 주의 다양한 수국을 식재했다.

수국은 식재된 토양 성분과 따라 자주, 보라, 흰, 파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이 피는 특징이 있어 개화기에는

다양한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수제화한 폭을 감상할 수 있다.

박우량 군수는 “수국공원은 주변의 시목해수욕장,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관광객증대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안에 오면 1년 내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천사 섬의 특색을 살린 수국, 목련, 매화, 동백, 무궁화, 튜립, 원추리 등 다양한 수종의 수목을 활용해 차별화된 계절 꽃을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해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신안=이주열기자

진도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 지속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 예방 활동

진도군이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TF팀을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운영하고 진도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진도 119 안전센터 등 6개 유관기관이 동참해 폭염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실시간으로 폭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283개소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을 비롯 폭염 대비 행동요령 전파, 냉방기 점검과 온열질환자 감시 체계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온열 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진도읍 일원 10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주요 도로(약 4.5km)에 살수차를 이용해 지난달 17일부터 도로 물뿌리기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병호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목 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완도 해양기후치유 참가자 모집 9일까지 선착순 30명...참가비 무료

완도군은 오는 13일부터 5일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해양기후치유 시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9일까지 완도군청 해양수산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운동복(티셔츠, 반바지)과 운동화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해양기후치유란 해양에어로졸(바닷물의 미세한 공기 입자)과 바람, 비타인D 생성에 도움을 주는 태양광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호흡기·피부 질환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에 운영할 프로그램은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해변 필라테스, 아쿠아테크, 해양 패들보드 등 5개 분야다.

완도는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이온이 대도시의 50배나 되고 깨끗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건강을 챙기며 특별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이번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진도 저출산 인식 개선 인구교육

진도군이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군내면에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개최했다.

이정환 강사는 “중·고등학생의 50%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 조사에서 답변한다”고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피한다면 앞으로 군 병력·생산인구 감소 등이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 서울 어린이 문화체험단 초청

영암군과 자매도시 영등포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해당 지역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했다.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15명은 이달 초 2박 3일 일정으로 영암을 방문했다. 견학 프로그램으로는 목재문화체험, 왕인박사유적지 견학, 도기빚기 체험, 氣찬랜드 물놀이, F1경주장 방문 등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신안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개인용 머그컵을 배부했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등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군민들에게도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과 1회 용품 줄이기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기자



장흥 물축제장 여성용품 무료 배부

장흥군은 최근 마무리된 제11회 정남진 물축제장에서 여성위생용품을 비치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흥군과 K-water 전남서남권지사,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물축제장에서의 최고의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